

등유·경유의 유통 및 품질문제

朴 在 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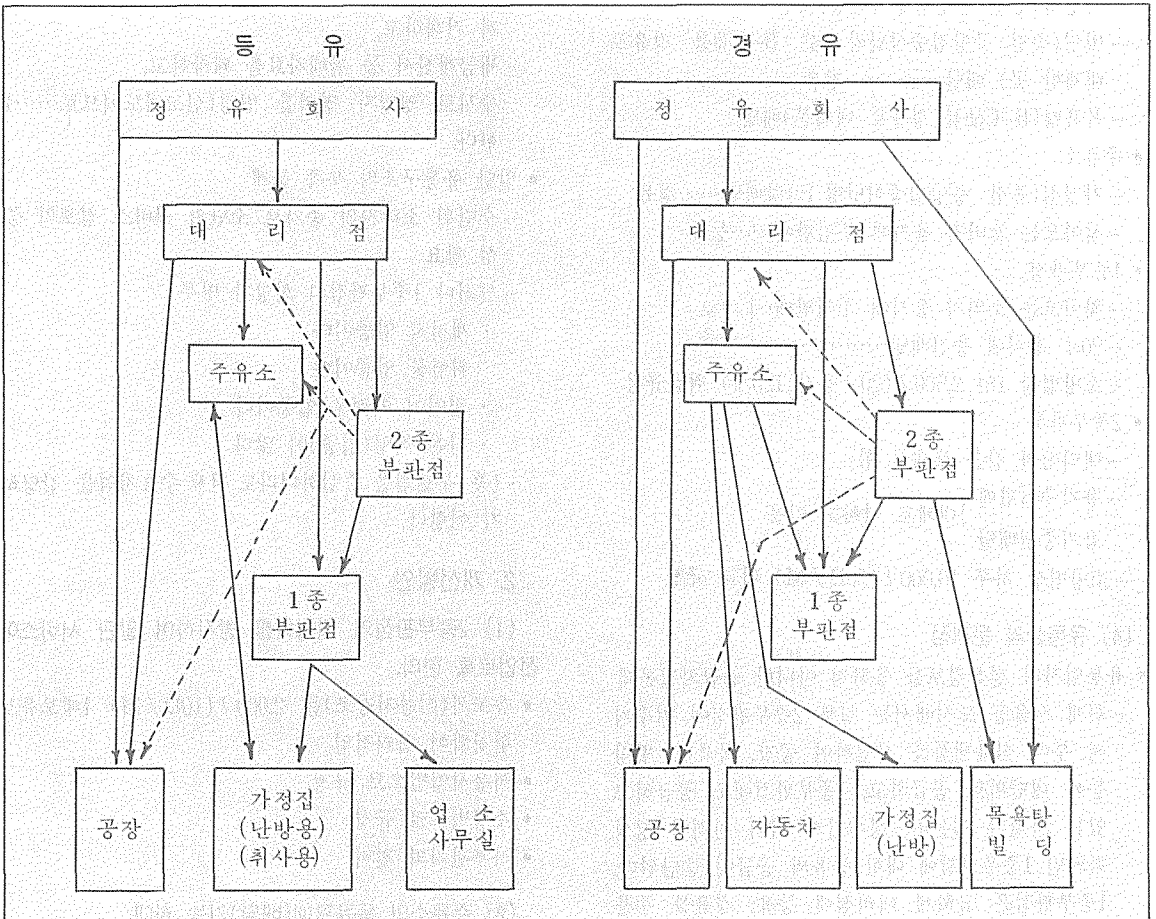
(동진석유 대표)

I. 유통상의 제문제

(유통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1. 현 황

(1) 유통구조



(2) 등유·경유의 수요추세

• 石油가 안전, 편리하고 가격도 연탄과 대차 없으며, 저소득층도 소득이 증대되어 무연탄 사용에서 등·경유로 대체하고 있으며 기타 소형보일러 및 난방기구의 발달로 등유수요가 폭발적으로 신장하고 있고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 등유수요의 집중 증가
- 소량수요와 장거리, 고소 배달물량의 증가
소형 등유, 경유보일러 연료탱크 60 l ~ 100 l 3층 ~ 5층 다세대주택 및 빌딩 사무실 배달 배달구역의 광역화.

(3) 유통의 현황

(별표 유통구조표 참조)

- 대리점
 - 주유소·부판점에 공급
 - 가정집 (종전 중앙집중식난방) 배달
 - 빌딩 (종전 중앙집중식난방 및 B-C油를 경유로 대체한 곳) 배달 경유
 - 목욕탕(B-C油를 경유로 대체분) 배달
- 주유소
 - 가정집 (종전 중앙집중식난방) 차량배달 경유
 - 찾아오는 소비자 용기에 주입판매 등유
- 1종부판점
 - 찾아오는 소비자 용기에 주입판매 } 주로
- 20 l 용기에 충전배달 } 등유
 - 소방법상 1일 2,500 l (20 l 용기 125개) 취급규정
- 2종부판점
 - 대리점과 같은 행세를 함
 - 용기주입판매 } 대체로 안하고 있음
- 용기충전배달 }
 - 소방법상 하루 10,000 l (50D / M) 취급 규정

(4) 유통상의 문제점

- 유통업자의 정상경로를 통하지 아니한 공급차질문제
 - 현재 서울등 도시에서는 일부 2종부판점이 비수기에 투매 석유제품을 사입하여 공장, 목욕탕, 빌딩 등에 대단위로 공급하고, 1종부판점에도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성수기가 되어 가격이 정상화되면 1종부판점에 대한 등유의 공급이 중단된다. 1종부판점은 급하게 대리점에 등유, 경유를 주문

하지만, 판매계획에 없는 주문이므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1종부판점에서 배달받고 있던 가정집, 영업집, 사무실 등 소비자는 혹한에 석유를 배달 받을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한다.

(1종부판점이 대리점에서 사입하지 않고 주유소에서 사입하고 있을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함).

- 그뿐만 아니라, 2종부판점의 이러한 영업은 평소에 대리점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시설해 놓은 법정허가기준의 저장시설(수도권 7,500D / M, 지방 3,500D / M)과 수송장비(수도권 500D / M, 지방 250D / M)를 사장케 하고, 석유류 공급계획에 차질을 발생케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러한 2종부판점은 소방법에 위배하여 50D / M, 70D / M, 80D / M의 유조차 수대를 보유하고, 1일 취급물량을 위장하기 위하여 5~6개의 대리점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등 판매자료를 왜곡하고, 수시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신고제도이므로.....) 한다.

• 말단 유통구조의 부족 문제

- 소단위 소비자의 증가로 소단위 서비스 점포의 증설 필요
- 그러나 1종부판점의 희망자 별무
 - 계절적 업종이다
 - 위험물 업종이다
 - 점업이 어려운 업종이다
 - 다른 직업(업종)이 많다
- 1종 부판점을 증설하더라도 전체 수요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2. 개선방안

(1) 2종부판점의 대형화를 방지하여 말단 서비스에 전업토록 한다.

- 유조차(이동저장조)를 2,000 l (10D / M) 1대보유로 한정함이 합리적임.
- 석유사업법으로 규정
- 소방법으로 규정
- 사후관리의 철저

(2) 주유소의 등유판매(배달)가능 확대

- 주유소는 과거에 가정난방보일러(주로 중앙집중식)의 경유를 주로 공급해 왔다.
- 가정난방의 추세가 소형 등유 보일러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있어 소형보일러의 등유도 주유소가 배송함이 합리적이다.
- 현재는 찾아오는 소비자 용기(20 l)에 주입 판매하는 정도이지만 유량계가 첨부된 등유 유조차(홈로-리)로서 소비처 배송을 권장함이 합리적이다.
- 석유사업법 또는 소방법으로 규정
 〈예〉 고정된 급유설비로서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당해 취급소에서 등유, 경유를 용기에 충전하고, 또는 2,000 l 미만의 이동저장조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를 포함한다).

(3) 부관점의 대리점과의 계약거래의 확립

- 대리점 공급계획의 수립가능으로 공급차질 미연방지
- 품질관리의 가능

(4) 등유의 일반점포 판매제도의 개발

- 소방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만을 규정하고 있음으로(등유의 경우 500 l 이상)
- 20 l 용기에 충전봉인된 등유 25개이내의 물량은 일반점포에서 판매토록함이 합리적이다.
- 연탄가게, 슈퍼, 미곡상 등을 이용함이 좋을것임.
- 가연물의 관리규정은 시 조례등으로 규정함이 가함.

(5) 등유의 포장상품의 개발

- 주유소 및 부관점, 일반점포 판매에 편리함.
- 타상품(윤활유, 페인트, 간장)은 포장상품이 상식화 되어 있음.
- 정량공급이 가능함.
-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품질향상이 가능.
- 배달물량을 줄일 수 있음.
- 정유회사의 상표선전에도 기여.

(6) 등유가격의 재조정으로 등유소비의 억제

- 타 에너지에 비하여 저렴한 값 불무.
- 연탄산업의 쇠퇴도 초래.
 - 부존자원이 없는 석유의 과소비로 외화낭비, 석유 공황시 위기 초래.

- 유종간의 수급차질 발생, 타유종의 투매현상 유발.

II. 정량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1. 현 황

(1) 배달운임을 사유로 한 정량거래 저해

- 20 l → 19 l 1 l 감 186원
 18 l 2 l 감 372원
 17 l 3 l 감 558원
 16 l 4 l 감 744원
- 〈참고〉 등유의 중량

등유비중 0.803	20 l	17.3kg
용기중량 약 1.3kg	18 l	15.7kg
	10 l	9.3kg

(2) 규격용기 미보급으로 인한 정량거래 저해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기는 대소 각양각색이며, 용량표시가 없고, 불투명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

(3) 유량계 미비로 인한 정량거래 저해

- 부관점에 있어서의 주유기 미비
- 배달현장에 있어서의 유량계 미비

(4) 품질표시 및 봉인제도 미비로 인한 정량거래 저해

- 책임한계 모호

2. 개선방향

- (1)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량형기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이고, 불신사회를 조성하며, 타업종에 파급될 우려도 있음으로 정량거래하고 운임을 따로 받는 것이 좋다.

(2) 포장상품의 개발(유통구조개선방안 참조)

- 20 l 철관사용시 개당 1,000원 l 당 50원 소요
- 20 l PVC 용기사용시 개당 2,000원 l 당 100원 소요 봉인이 불편하나 시봉할 수도 있음.

(3) 규격용기의 사용의무화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중이라고 하는 바, 시행에

있어서는 배달에 낭비가 없는 규격으로 하고, 용량을 볼 수 있게 반투명이 좋으며, 눈금은 5 l, 10 l, 15 l 그 이상은 매 l 당 표시됨이 합리적임.

(4) 홈로리의 개발(유통구조개선방안 참조)

- 배송지에서 소비자가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배송에 절대 위력을 발휘하는 홈로리(유조차)의 개발이 시급함.

Ⅲ. 수송배달상의 문제 검토

1. 대리점단위에 있어서의 문제 검토

(1) 문제점

- 仁川왕복 종전 일4회, 현재 일2회
- 혹한 병설시 더욱 악화
- 운전기사의 기준시간 근무경향
- 유조차 증차시 비수시 운휴중대로 효율 저하→원가양등, 기사확보난
- 仁川출하량의 증대(파이프라인 송유량의 한계)
- 서울 근교에 저장시설 설치코저하나 부지확보난
- 자동차회사의 유조차 출고지연

(2) 개선방안

- 서울근교에 저장시설 부지허용
- 정유회사의 저유소를 서울근교에 건설
-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증설허가 또는 고급휘발유의 등유용도 변경허가
- 석유안전기금의 석유유통업계 이용 허용
- 자동차회사에 유조차 제작출고 독촉

2. 부판점의 등유배달상의 문제점

(1) 문제점

- 석유류는 전국균일가격제도를 시행중이므로 부판점도 등유배달료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부판점마진은 주유소마진과 같은 금액이며, 주유소는 동마진으로서 인건비, 전기료, 감가상각비등을 지급, 공급하고 있다. (등유 l 당 15.68원) 부판점도 이마진으로서 판매하고 배달해야 한다.
- 단, 단위물량이 영세하여 매출총이익금이 적은데 인건비가 고임금이 되니 배달료 문제가 야기된다.

• 월간 매출총이익

소방법상 취급물량기준 일 10D/M(20 l 용기100개)
 $2,000 l \times 15.68 \text{원} \times 30 \text{일} = 940,800 \text{원}$

- 배달원가(l 당 10원 : 용기당 200원) (우선 인건비만 계산) 오토바이 1대, 월급 300,000원, 식대 150,000원, 계 450,000원 1회 8개 1회전1시간소요 10회전(80개)

$160 l \times 10 = 1,600 l$ (일배달량)

픽 업 33개 660 l

봉 고 70개 1,400 l

타이탄 150개 3,000 l

} 소방법 지정수량 초과
 (배달단가는 다소 저렴해짐)

- 그러나 20 l 용기 1개 인건비가 대략 200원 이라고 해서 운반해 줄 사람이 없다. 1개운반의 경우 최소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감량이 오히려 싸다.(목계 발생)

20 l → 19 l 1 l 감 186원

18 l 2 l 372원

17 l 3 l 558원

16 l 4 l 744원

- 최고 20% 정량미달로서 중대한 질서범이 된다.

(2) 개선방안

- 정량거래를 원칙으로하고 다음 A, B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포장상품, 규격용기, 봉인 등으로 정량판매를 강력히 규제
 가. 배달료를 사계약에 맡기는 방법(단, 홈로리등 유조차 배달분 제외).

<단 점>

- 배달료가 비싸진다.
- 배달기피 사례가 발생한다.

<장 점>

- 정량거래 가능
- 유가의 전국균일가격제도 유지가능

나. 마진을 인상하여 배달을 의무화하는 방법

<단 점>

- 주유소, 부판점에 찾아온 소비자의 손해
- 전원 배달희망으로 배달주문 쇄도
- 점포판매가격과 배달판매가격 동일로 배달기피

- 결국 배달료 별도가산이 되어 가격만 앙등

<장 점>

- 혹은 열심히 배달하게 될 가능성도 많음.

다. 배달가격과 점포판매가격의 이중고시방법

<단 점>

- 가격구조가 복잡해진다.
- 주유소와 2중부관점에서 차량배달분도 배달가격으로 해야되는지의 문제가 야기된다.
- 이 경우 차량배달분을 배달가격에 포함시켰을 때 경유의 배달분도 등유배달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의 혼란이 온다.
- 등유만 배달가격을 할 것인지, 경유도 할 것인지, 포장상품도 할 것인지의 문제점이 남는다.

<장 점>

- 배달가격분은 분명히 배달하게 되어 배달기피 사유가 없어진다.

(3) 마진 인상문제

서비스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공급가액이 앙등되어야 한다.

별써 石油의 원가면에는 수송회전률의 저하, 임금의 앙등등으로 가격수정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IV. 품질문제

(1) 품질관리상의 문제점

- 윤활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은 품질표시가 실시되고 있지않아 소비자보호에 허점이 많다.
- 휘발유, 등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관련 제품의 품질규제, 표시 및 판매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품질표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 어느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할 때가 왔다.
- 가령 주유소 등에서 A사의 상표(표사인)을 게시해 놓고 B, C, D사의 제품을 판매함은 지양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시급히 시행함이 합리적이다.

(2) 자율적 품질검사제도의 개발육성

- 현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이 검사와는 별도로
- 사업자협회에 휘발유에 등유유분의 혼합여부의 간이 한 시험종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음.

무재해기 계양 지상 캠페인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무재해운동의 기본정신은

인간존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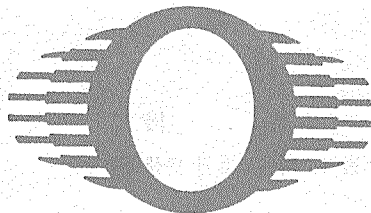
사업장에서는 그 심볼로

무재해 기를 계양합니다.

경영자·근로자는

펼쳐서는 무재해 기를 보며

안전생활을 다짐합니다.



무 재 해